

박휘락의 『한국 미술교육사: 미술교육 100년의 흐름(1895-1995)』를 읽고

박지나
홍익대학교 강사

요약 디자인사는 미술, 건축은 물론 역사학, 철학, 사회학이나 심리학까지 관련지어 연구해야 한다. 하지만 초중등학교 제도교육에서 미술과목 안에 있는 디자인 교과나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교육대학에 속한 미술교육 내 디자인교육 전공은 한국디자인사 연구에 포함되고 있을까? 박휘락은 『한국 미술교육사: 미술교육 100년의 흐름(1895-1995)』에서 1895-1995년까지 한국 근대 디자인교육의 변천과정을 저술했다. 이를 통해 깨달은 것은 한국 디자인교육의 '배치(Agencement)'이다. '배치'는 공식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사건'으로 이루어진 '계열'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역사성을 갖는다. 배치된 세계는 시간과 공간 속에 놓이고, 각각의 대상은 '포함'과 '배제'의 논의에 종속된다. 박휘락은 미술교육의 맥락에서 디자인교육사를 기록했다. 지금, 박휘락의 미술교육에 관한 기록을 디자인교육에 관한 논의 안에 '포함'하는 것은 그동안 한국디자인사에서 '배제'되었던 사건을 '재배치'하는 것이자 한국디자인사를 확장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

1. 들어가며
2. 한국에서 디자인교육의 배치에 관하여
3. 근대 디자인의 역사와 근대디자인교육의 역사
4. 한국 근대 디자인의 역사와 근대 디자인교육의 역사
5. 나가며

Reading Park Hwirak's *The History of Art Education in Korea: 100 Years of Art Education (1895–1995)*

Park Jina
Lecturer
Hongik University

In his book, *The History of Art Education in Korea: 100 Years of Art Education (1895–1995)*, Park Hwirak wrote about the transition process of modern Korean design education from 1895 to 1995. But why is his name unfamiliar to the design community? For research on design history, one should study not only art and architecture but also history, philosophy, sociology and psychology in relation to it. However, in such studies, design education included in design curriculum under institutional education, design education conducted at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arts education majors at universities of education have not been taken into account. What I realized through this study was the agencement (arrangement) of Korean design education. There is something that must be considered when discussing agencement. First, the arranged world is a matter of space between “inclusion” and “exclusion.” Second, agencement is carried out in time and space, and the context of “ground” or “field” is necessarily important. To date, Park has written about modern Korean design education considering agencement within the history of art education in Korea.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including and rearranging Park Hwirak's name in Korean design history is an important event that expands Korean design history.

Abstract

1. 들어가며

박휘락? 이름이 낯설다. 그는 『한국 미술교육사: 미술교육 100년의 흐름(1895-1995)』(이하 부제 생략)을 저술했다. 특히 2부 5장에서 1895년에서 1995년까지의 한국 근대 디자인교육의 변천과정을 서술했다. 그런데 한국에서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디자이너로 살며, 대학에서 디자인사 강의를 하고, 또 디자인 관련 이론, 역사책, 논문들을 읽으면서도 박휘락이라는 이름을 자주 못 들어 본 까닭은 무엇일까? 나는 디자인이야말로 미술, 건축은 물론 역사학, 철학, 사회학, 심리학까지 관련지어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왔다. 그러나, 정작 초중고, 특성화고 디자인교과 등 제도교육 속 미술, 디자인교육 등, 혹은 교육대학이나 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등에 대해서는 미처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어쩌면 디자인교육은 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해온 것은 아닐까? 박휘락을 통해 내가 깨달은 것은 한국에서 디자인교육의 ‘배치’에 관한 문제였다.

2. 한국에서 디자인교육의 배치에 관하여

들뢰즈(Gilles Deleuze)는 배치(Agencement)¹⁾가 선들로 연결된 ‘사건’이라고 했다. 즉, ‘배치’는 각 항의 의미가 아닌 각 항들이 연결된 전체의 의미 관계를 포착하는 것을 말한다. 들뢰즈 철학의 창조적 확장으로 평가받는 데 란다(Manuel De Landa)는 그의 책 『들뢰즈: 역사와 과학』에서 하나의 이론과 사유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대상은 물질뿐 아니라 태도, 신념 같은 것들로 구성되고, 관념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수행된 일상적인, 정신적인 것까지도 포함한다. 그는 ‘배치’는 역사성을 갖는다고 했는데, 각 대상은 역사 속 선형의 배치에 의해 서로 연결되는 ‘사건’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²⁾

이를 한국 디자인교육의 역사에 대입해 보자. 한국에서 디자인교육은 일반적으로, ‘주체로서의 디자인’ - ‘디자인 교육자’ - ‘디자인을 교육받는 학생’이라는 ‘선형 배치’ 속에 있다. 하지만 이 ‘배치’만으로는 어떤 디자인, 어떤 교육자, 또 어떤 학생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배치’를 논할 때 두 가지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배치’는 ‘포함’과 ‘배제’의 논의에 종속된 공간의 문제라는 점, 둘째, ‘배치’는 시간과 공간 속에 놓이며 반드시 ‘바탕(ground)’이나 사회적 ‘장(field)’이라는 맥락을 살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한국 디자인교육이 무엇을 ‘포함’하고 ‘배제’하며 ‘배치’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맥락(배경, 바탕, 장) 위에 있는지를 서술하지 않고는 한국 디자인교육을 설명할 수 없다.

한국에서 전문적인 디자인교육은 대학이라는 ‘장’에서 이루어진다. 대학의 디자인교육은 디자인 실무자 혹은 디자인 전문가 배출에 주로 초점을 둔다. 이는 전문 디자인 실무를 수행할

1) 배치(Agencement, assemblage)는 들뢰즈와 가타리(Felix Guattari)의 개념으로 ‘공시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계열들을 말한다. 배치 안에서 각각의 항은 다른 이웃 항과 접촉하여 하나의 기계로 작동한다.’ 이진경, 『철학의 외부』, (그린비, 2002), p.243

2) 마누엘 데 란다, 『들뢰즈: 역사와 과학』, 유충현 옮김, (그린비, 2020), pp.22-28

수 있는 디자이너 혹은 디자인 교육자 교육을 위한 '배치'이다. 예를 들면, 시각디자인과 디자인교육의 '배치'는 '시각디자인 이론과 실기' - '시각디자인과 교수' - '시각디자인 전공학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학이 아닌 곳에서도 디자인교육은 이루어진다. '초중등학교 미술시간에서 디자인수업' - '초등학교 교사' - '초등학생'의 '배치'는 초중등학교라는 제도권 교육의 미술교과에서 디자인을 배우는 '배치'이다. 여기에서 디자인교육은 디자인 전문가 양성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 소양 학습으로서의 디자인교육이다. 한편, 특성화 고등학교 디자인교육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사회에서 디자인 실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담당하는 교사가 바로 디자인교육학³⁾ 전공자다. 디자인교육학은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유능한 디자인 교사 또는 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국내 디자인고등학교에서 디자인 또는 공예 교육을 주로 맡아 담당할 전문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제도권 대학에서 미술교육전공에서도 디자인교육은 심도 있게 연구되고 있는데, 이 경우 전문적인 디자인 연구나 실무 디자이너 양성은 '배제'된다.

박휘락은 이 점을 명쾌하게 정리한다. "디자인교육은 제도상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대학과 같은 고등전문교육기관에서 하는 전문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교육, 둘째는 초중등학교 미술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조형감각 육성과 그 표현을 통한 창조력 양성을 목적으로 행하는 보통교육"⁴⁾이다. 전자는 대학에서의 디자인교육으로 특히 자본 팽창과 산업 성장이라는 맥락에서의 '배치'이고, 후자는 박휘락이 주목한 것처럼 시민의 기본 소양과 삶의 개선으로서의 '배치'이다. 이처럼 한국 디자인교육은 서로 다른 '맥락' 속에서 공존해왔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단 하나의 디자인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오히려 다양한 '맥락'의 '배치' 안에서만 비로소 균형 잡힌 디자인사 서술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른바 학문별 분과중심주의는 같은 대상을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배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무심함으로 일관했다. 더 위험한 것은 '배치'나 '맥락'이 다름을 먼저 사유하지 않고 '단 하나의 디자인사'가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자의적으로 한번 '배치'된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그 '배치'를 공고히 하게 되고 결국에는 선택이 아닌 강제로 작동하면서 순응해야 하는 규범이 된다는 데 란다의 지적⁵⁾을 상기해야 한다.

박휘락이 『한국 미술교육사』에서 서술한 한국 근대 디자인교육이라는 '배치'는 그동안 대학의 디자인사 연구에서 배제되어 왔다. 하지만 앞서 살핀 이유 때문에 그의 연구를 한국 디자인사 속에 '재배치'하는 일은 한국 디자인교육과 디자인사를 더 균형 있게 확장하는 중요한 사건일 수 있다.

3) 국내에는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에 디자인교육학과가 있으며 한양대학교 사범대학에 응용미술학과가 있다. - 전국 교육대학원 전공학과 및 대학원 분포, [http://www.gradmap.co.kr/dept/html/graduate\(datad\).html](http://www.gradmap.co.kr/dept/html/graduate(datad).html) (2021.7.17)

4) 박휘락, 「디자인교육의 변천과정」, 『한국 미술교육사: 미술교육 100년의 흐름(1895-1995)』, (예경, 1998), p.216

5) 데란다는 '한번 배치된 구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강제임을 깨닫게 되고 이는 곧 순응해야 할 규범이 된다.'라고 지적한다. 마누엘 데 란다, 『들뢰즈: 역사와 과학』, 유충현 옮김, p.88

3. 근대디자인의 역사와 근대디자인교육의 역사

서양에서 근대 디자인사 서술은 1936년 페브스너(Nikolaus Pevsner)의 『모던 디자인의 선구자들: 윌리엄 모리스에서 발터 그로피우스까지(Pioneers of Modern Design: From William Morris to Walter)』를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산업혁명의 정점에서 대영만국박람회(1851)가 개최되었던 영국 빅토리아 시기, 사회 사상가이자 예술 비평가인 러스킨(John Ruskin)의 영향을 받은 모리스(William Morris)의 예술공예운동(Art & Craft Movement)에서 바우하우스(Bauhaus)로 이어지는 서양 디자인사는 ‘사실의 기록’이라기보다는 모더니즘이라는 하나의 사관으로 근대 디자인의 계보를 엮은 ‘기록으로서의 역사’이다.

박휘락은 “디자인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왔으나, 근대적 의미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서 나타난 산업혁명에서 비롯되었다. 산업혁명에 따른 대량생산은 공업의 발전과 대중의 소비생활을 촉진시켜 디자인교육의 필요성을 낳게 했다.”⁶⁾고 설명한다. 이처럼 근대 디자인은 근대적 디자인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등장했다.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으로 인한 제품의 질 하락은 디자인 진흥에 관한 관심을 촉발했고, 그 관심은 전문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능중심 미술교육’이 있었다. 산업혁명기 영국에서 디자인교육은 최초의 관립디자인학교(현 Royal College of Art, RCA)⁷⁾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전국 각지에 도안학교가 개설되었다.⁸⁾ 예술공예운동의 확산과 함께 “영국 정부는 디자인교육에 힘을 쏟는 동시에 공예품 제조를 비롯한 일반인의 취미 향상 도모를 위해 미술관, 박물관을 공개했으며, 동시에 아동에 대한 도화교육에도 관심을 꾀했다.”⁹⁾ 이때 디자인교육은 ‘기능중심 미술교육’의 일환으로 공예와 함께 포함되었으며, ‘조형감각의 육성과 그 표현을 통한 창조력 양성을 목적으로 행하는 종합적인 미술교육’을 목표로 제도교육 속에서 자리 잡게 된다.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선언한 일본의 경우도 19세기에 근대 디자인과 근대적 디자인교육이 함께 나타난다. 그러나 “서양 미술교육을 전면적으로 수용했지만, 서양 근대 미술교육을 자국의 상황에 맞추어 바꾸어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서양 근대 교육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채 형식만 가져오면서 기술에 치중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¹⁰⁾ 일본의 근대적 미술교육은 도입기부터 ‘서양으로부터 배워야 할 근대

6) 박휘락, 「디자인교육의 변천과정」, p.214

7) 1837년 영국 관립 디자인 학교로 설립, 1853년 조직 확대와 함께 국립 미술 훈련 학교(National Art Training School)로 이름을 바꾸고 말보로 하우스로 이전했고, 1857년에는 사우스 켄싱턴으로 이전하였다. 19세기 동안 종종 사우스 켄싱턴 학교(South Kensington Schools)라고 했다. 이 학교의 주요 목적은 교원 양성이었다. 1896년 이후 영국 왕립 미술학교(Royal College of Art)로 개명하였다.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로열_칼리지_오브_아트 (2021.7.18)

8) 박휘락, 「디자인교육의 변천과정」, pp.214-215

9) 신유미, 「한·일 근대 공예도안 연구: 工藝圖案集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2), p.5

10) 김희엽, 「한국 근대 초등도화교과서에 수용된 서양 근대미술교육 요소: 제1-2차 조선교육령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0), pp.22-30

11) 오윤정, 「메이지미술과 일본의 '근대」, 『일본비평』,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8), p.133

기술의 하나¹¹⁾로 접근했다. 일본은 1896년 동경미술학교에 도안(圖案)¹²⁾과를 설치하고 파리 만국박람회 시찰 후인 1901년에 '일본디자인협회'를 설립했다. 여기에서 도안이란 '건축과 장식, 공예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일본에서 도안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공예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였다. 1929년 동경미술학교 요람에도 "본교는 미술과 미술공예에 종사하는 전문기술가와 보통교육에 종사할 도화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중략) 설립한다."¹³⁾라고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에서 보통교육으로서의 디자인교육은 1881년 '소학교교칙강령(小學校教則綱領)'이 반포되면서 본격적인 도화교육으로 시작되었으며 1904년에는 국정교과서 제도가 만들어졌다. 미술교과서인 『신정화첩(심상소학신정화첩 尋常小學新定畫帖)』에는 회화뿐 아니라 도안, 색채, 투시도 등도 다루었으며 전문 회화교육과 보통 도화교육은 이 시기 이후부터 확연하게 구분되었다.¹⁴⁾ 1906년에는 의장화(意匠畫), 1909년에는 고안화(考案畫)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오늘날 디자인에 해당하는 용어이다.¹⁵⁾ 또한 소학교와 보통학교의 도화과에서 문양(紋樣), 모양(模樣), 기하화(幾何化), 용기화(用器畫)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용기화란 자와 컴퍼스 등을 사용한 기하학적 제도를 말하는데, 근대기 중등미술교육에서는 평면기하화법, 투영도법, 투시도법 등을 일컬었다. 이런 용어 사용은 개항 이후 근대화화 산업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나타났으며, 당시 근대 디자인교육이 제도교육에서 나타난 종합적인 미술교육으로서 보통교육뿐만 아니라 '기능중심 미술교육'의 전문 디자인교육을 어울렸음을 알 수 있다.

4. 한국 근대 디자인의 역사와 근대 디자인교육의 역사

노유니아는 한국에서 디자인교육이 한국인 최초로 일본 동경미술학교 도안과에 유학한 임숙재(任濤宰)와 이순석(李順石)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했다. 1928년에 졸업한 임숙재가 도안과에서 공예를 중심으로 교육받은 반면, 3년 후 졸업한 이순석은 일본 내에서 있었던 '디자인개혁운동(1928)'의 영향으로 소위 편화(便化)에 의한 일본식 도안교육, 즉 근대 디자인교육을 받았고, 귀국 후 1931년부터 화신백화점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한국에서 본격적인 디자인 전문가로 활동했다.¹⁶⁾ 이들은 일본식 근대 디자인 방법론에 의해 양성된 도안가로 전문 디자이너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 전문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으로서 디자인교육의 '배치'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대학에서의 디자인교육은 1946년

- 12) 도안(圖案)은 일본의 '도공(圖工)'과 '안가(案家)'라고 하는 전통에서 고안된 신조어로, 노토미 가이지로(納富介次郎)가 1873년 빈 만국박람회 참가를 위해 만든 디자인의 역어이다. 디자인(Design)의 역어로 사용된 '의장(意匠)' 역시 현재는 '공업의장'이나 '의장등록' 등의 용례로 남아 있고, 메이저기에 초벌그림, 밑그림을 의미한 '하도(下圖)' 역시 '도안(圖案)', '하화(下畫)', '하회(下繪)' 등 다양한 용어와 함께 통용되다가 근래에는 도안으로 통칭된다. 신유미, 「한·일 근대 공예도안 연구: 工藝圖案集을 中心으로」, p.2
- 13) 노유니아, 「한국 근대 디자인 개념과 양식의 수용: 동경미술학교 도안과 유학생 임숙재(任濤宰)를 중심으로」, 『미술이론과 현장』, 8권, (한국미술이론학회, 2009), pp.12-15
- 14) 황연정, 「한국근대 미술교육제도의 형성이 현대미술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p.34
- 15) 김희엽, 「한국 근대 초등도화교과서에 수용된 서양 근대미술교육 요소: 제1-2차 조선교육령기를 중심으로」, p.33
- 16) 노유니아, 「한국 근대 디자인 개념과 양식의 수용: 동경미술학교 도안과 유학생 임숙재(任濤宰)를 중심으로」, pp.7-31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에 신설된 도안과와 1958년 홍익대학교 미술학부에 신설된 공예과¹⁷⁾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문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이 아닌 보통교육으로 '재배치'하면, 한국 디자인교육의 역사는 1928년도 1946년도 아닌 1895년으로 앞당겨진다.

박휘락은 『한국 미술교육사』 2부 5장 디자인교육의 변천과정을 서술했다. 또한 그는 한국 디자인교육은 일본에 의해서가 아닌 주체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학교 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은 대한제국(大韓帝國) 개항기에 소학교령(1895.7.19, 칙령 14호)에 의해 마련된 근대 교육제도가 기초가 되었다. 그에 따르면 각 학교에 도화과를 도입한 것이 1895년부터이며, 일제 강점기 시작이 1910년임을 고려한다면, 한국에서의 근대 디자인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의 일본의 근대교육 도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전에 근대 제도로서 주체적으로 도입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1906년 제정된 보통학교령에 의한 시행규칙에 따라 편찬하여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정 미술교과서 『도화임본(圖書臨本)』¹⁸⁾에 대한 연구를 『한국 미술교육사』 3부의 1장과 2장에서 심도 있게 서술하고 있다. 근대교육으로서의 한국 디자인교육은 대한제국기에 주체적으로 기획되었다. 하지만 '개항과 동시에 근대적 교육제도를 성립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의 간섭을 받았고, 1910년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인 식민지 교육 정책에 따라 전면적인 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¹⁹⁾

그러나 교육학에서의 '배치'가 아닌 전문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디자인교육의 '배치'로 살펴봐도 『도화임본』은 한국 최초의 디자인 교과서라는 의미를 넘어 산업혁명기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개항기 근대교육의 도입에서 보이는 '기능중심 미술교육'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물품의 수공업적 제작방식에서 기계에 의한 표준화된 대량 생산 방식으로 변화하였고, 도면과 설계도의 제작은 기계 생산과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준비되는 중요한 과정 같은 것이었다. 오늘날 산업디자인에서 제품생산에 앞서 이루어지는 제도는 근대기 용기화 교육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²⁰⁾ 따라서 대한제국기 『도화임본』 또는 『중등용기화법』에서 나타난 도안은 '기능중심 미술교육'으로 기능주의 디자인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기능주의는 서구 근대 디자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따라서 박휘락이 『한국 미술교육사』에서 서술한 '디자인교육의 변천과정 기록'은 미술교육분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나타난 주체적 근대 디자인, 또는 한국적 기능주의 디자인의 기원으로 다양하게 연구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5. 나가며

정리하면, 한국 디자인교육의 '배치'는 크게 엘리트교육으로서의 대학교육, 디자인교육학에서의 교사양성을 위한 교육, 시민교양 측면에서의 제도교육,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기술교육으로

17) 1964년 공예학부는 공예과와 도안과로 나뉘었다가 1968년에 응용미술과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1976년에 응용미술과를 공예과와 산업도안과로 개편하고 산업디자인과로 변경된다.

18) 『도화임본(圖書臨本)』, 국가등록문화재 733호, 지정등록일: 2018.10.1,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_1&ccbaCpno=4411107330000](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ccbaCpno=4411107330000) (2021.7.19)

19) 김희엽, 「한국 근대 초등도화교과서에 수용된 서양 근대미술교육 요소: 제1-2차 조선교육령기를 중심으로」, p.30

20) 박소영, 「한국 근대 공업학교에서의 용기화(用器畫) 교육의 내용 및 졸업생들의 활동과 사회적 역할」, 『조형교육』, 48호, (한국조형교육학회, 2013), pp.149-188

나눌 수 있다. 박휘락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 디자인교육은 전문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고등전문교육기관에서의 엘리트교육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미술교과에 의한 문화시민으로서의 소양교육을 포괄한다.

한국에서 근대적 디자인과 디자인교육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항, 개화, 근대화라는 사회적 배경과 장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한국의 디자인이 일방적으로 일제에 의해 시작되었다거나 해방 이후 미국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식의 일반화는 위험하다. 다양한 ‘맥락’을 ‘포함’하여 디자인사를 조명하지 않고, ‘배제’하며 선 긋는 분과중심주의 학문 풍토 안에서 ‘단 하나의 디자인의 사’가 있다고 보는 ‘배치’가 우리 디자인과 디자인교육, 그리고 그 역사를 폭넓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었을지 모른다. 한국 디자인사는 단 하나의 디자인사로 존재할 수 없다.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배치’ 위에서 다양한 한국 디자인사가 있을 뿐이다. ‘배제’와 ‘포함’의 논의를 고려하면서, 거시, 미시, 정치, 사회, 일상, 시각문화, 물질문화, 역사, 문학, 미술, 건축, 자본, 기술, 매체 등을 디자인과 함께 살필 때, 비로소 한국 디자인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심도 깊은 연구로 확장될 것이다. 44

참고 문헌

- 박휘락, (1998), 「디자인교육의 변천과정」, 『한국 미술교육사: 미술교육 100년의 흐름(1895-1995)』, 예경
- 마누엘 데 란다, (2019), 『새로운 사회철학-배치 이론과 사회적 복합성』, 그린비
- 마누엘 데 란다, (2020), 『들뢰즈: 역사와 과학』, 그린비
- 이진경, (2002), 『철학의 외부』, 그린비
- 노유니아, (2009), 「한국 근대 디자인 개념과 양식의 수용: 동경미술학교 도안과 유학생 임숙재를 중심으로」, 『미술이론과 현장』, 8권, 한국미술이론학회
- 박소영, (2013), 「한국 근대 공업학교에서의 용기화(用器畵)교육의 내용 및 졸업생들의 활동과 사회적 역할」, 『조형교육』, 48권, 한국조형교육학회
- 오윤정, (2018), 「메이지미술과 일본의 ‘근대’: 메이지미술회를 중심으로」, 『일본비평』, 10권 2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김희엽, (2020), 「한국 근대 초등도학교과서에 수용된 서양 근대미술교육 요소: 제1-2차 조선교육령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신유미, (2012), 「한·일 근대 공예도안 연구: 工藝圖案集을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황연정, (2011), 「한국근대 미술교육제도의 형성이 현대미술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국 교육대학원 전공학과 및 대학원 분포, [http://www.gradmap.co.kr/dept/html/graduate\(datad\).html](http://www.gradmap.co.kr/dept/html/graduate(datad).html) (2021.7.17)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_1&ccbaCpno=4411107330000 (2021.7.18)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로열_칼리지_오브_아트 (2021.7.19)